

*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자료

내 용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금융감독원2021.07.28.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진행현황('21.7.21. 기준)

금융위원회2021.07.21.

금융위원회는 '21.7.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함. 본허가를 신청한 5개사(㈜전북은행('21.6.24. 예비허가), 교보생명(주)('21.6.24. 예비허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뱅큐)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허가를 받음.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5개사(중소기업은행, 롯데카드(주), 교보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엘지씨엔에스)는 예비허가를 받음.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 예정임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2021.07.23.

금융위원회는 7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함.(현재까지 총 153건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함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

금융위원회2021.07.23.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함. 그러나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임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2021.07.27.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 계획을 밝힘. 즉 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며,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함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2021.07.28.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함

입법자료

내 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2021.07.22.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그러나 지정 완료 시 보험료의 일시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2021.07.22.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공적연금 간 연계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소 연계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며,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일부를 개선 · 보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3인2021.07.22.

「국민연금법」제18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18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대상범위를 추가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7인2021.07.2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해당 업종에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해외자료

내 용

Reserve Bank consults on interim insurance solvency standard

뉴질랜드(RBNZ)2021.07.22.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보험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최소자본금에 관한 잠정 솔벤시 규정 초안을 공개함

2021년 상반기 건강증진형 및 실물지급형 보험상품 매출 실적 발표

대만(FSC)2021.07.27.

대만금융괌독관리위원회(FSC)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건강증진형 및 실물지급형 보험상품 초년도 보험료는 각각 30억 852만 대만 달러, 3,321만 대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1%, 217% 증가함

Insurance Commissioner Lara lowers workers' compensation benchmark rate, further protecting workers and businesses during pandemic

미국(CDI)2021.07.21.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COVID19 상황의 회복으로 근로자들이 기업에 재취업함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낮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회복을 지원함

Recovery from Climate Change-Intensified Natural Disasters Can Be Faster, More Equitable Through New 'Climate Insurance' Strategies, Experts Find

캘리포니아의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보고서는 산불, 폭염, 홍수 이후의 피해를 줄이고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40개의 정책 권고안을 발표함

SUPERINTENDENT LACEWELL ANNOUNCES NEW DFS REPORT ON NEW YORK DOMESTIC INSURERS' MANAGEMENT OF THE FINANCIAL RISKS FROM CLIMATE CHANGE

미국(DFS)2021.07.28.

DFS는 NAIC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뉴욕 내 보험회사들의 기후 위험 관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CP16/21 - Insurance business transfers

영국(PRA)2021.07.28.

PRA는 경과기간의 종료와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 변화를 반영하고 보험계약 이전에 관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안서를 발간하고 2021년 10월까지 의견을 받음

EIOPA consults on the approach to the supervision of run-off undertakings 유럽(EIOPA)2021.07.23.

EIOPA는 런오프(Run-off) 비즈니스 감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해당 성명서의 목적은 Solvency II 규정이 적용되는 런오프 비즈니스 및 관련 포트폴리오에 고품질의 통합된 감독 규정 사항을 적용하기 하기 위함임

Solvency II review: for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프랑스(FFA)2021.07.27.

FFA는 솔벤시 II에 대하여 지난 12월 EIOPA가 제안한 의견에 반문을 제기하며 유럽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고령화 대응,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함